

추모 예배 가이드 북

춘천사랑의교회



추모예배 지침 안내문

기일에 드리는 추모(追慕)예배의 의의

추모(追慕)라는 용어가 바람직합니다. 추도(追悼)라는 용어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속에는 다분히 불신자적인 인상이 짙습니다. 추모(追慕)라는 용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함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바른 용어는 추모(追慕)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불신자에게는 올바른 죽음 의식을 주는데 있습니다.

죽음은 죄 값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을 잠잔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영혼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처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부활이 있습니다

2. 믿는 가족들에게는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활신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들이 부활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조상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상의 경건한 행위는 자손을 지키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모예배는 조상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져야 합니다.

4. 신앙상속을 인식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추모예배는 신앙상속에 대한 감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상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고인을 기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5.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입니다.

가장 슬플 때에 사람들과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교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모예배 준비

추모일이 다가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1. 추모예배 날짜는 추모일이 마땅하나 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주일인 경우는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옮겨서 함이 좋습니다.
2. 예배는 정오나 저녁시간을 전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같이 늦은 시간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3. 기독교적인 추모예배의 특징은 직계자손과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고인과 함께 평소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약간 명 초대하여 고인을 추모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추모예배 장소에 촛불을 켜놓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음식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이니 추모예배가 끝난 후에 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사진과 화분 정도의 장식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절대로 고인을 향해 절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5. 고인의 유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고인의 사진과 육성테이프, 고인의 약력, 사진첩, 그리고 사용하던 성경과 찬송가책등은 생존 시 모습을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아주 효과적 유품들이라 하겠습니다.
6. 예배의 집례는 소천하신 후 1년까지는 교역자가 하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는 가족 중심으로 모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집례 하는 합동 추모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7. 만일 불신가족으로 불신자의 심한 반대에 부딪쳐서 추모예배가 어려울 경우에 당분간은 유연한 태도로서 추모예배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8. 불신자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교회전통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예식이 끝나는 뒤로 미뤄야 합니다.
9. 모든 예배자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10.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집례자는 고인의 사진 오른편에 자리 잡고 그 밖의 사람은 적당히 자리 잡게 하고 시작하여야 합니다.
11. 예식이 끝나고 애찬의 식탁에 둘러앉아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독교와 조상제사

조상숭배 제사에서 기독교가 수용할 수 없는 요소들

1. 조상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신으로 여기며 제상을 차려 놓고 절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그 외에 어떤 존재라도 신적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긴다(출 20:3-5)
2. 조상이 복과 화를 내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3. 조상을 천신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격으로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적 중보자는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빌 2:5-11, 행 4:12)
4. 죽은 조상의 혼령과 교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과 지시를 따르는 천사가 아닌 어떤 존재와도 영적 교류를 가질 수 없으며, 또 가지는 것을 금하고 있다.

조상숭배 행위에서 기독교가 이어 취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

1. 부모에 대한 공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과 행위를 가져야 한다.
2. 세상을 떠난 조상에 대한 추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양육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특별히 조상이 남긴 신앙의 모본과 교훈을 되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성묘
조상의 무덤을 찾아 성묘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일깨움도 유익하다고 본다. 하지만 삼우제 등과 같이 불교 혹은 무속의 복잡한 체계를 믿지 않으므로 날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4.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들과의 연합
우리가 조상의 영혼과 교류함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조상들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인 것이다. 조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일치할 수 있을 것이다.

추모 예배 순서

찬 송	309, 302 장	다같이
사도신경		다같이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수 24:14-15	인도자
말 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인도자
		인도자는 말씀 선포 후 기도
찬 송	490 장	다같이
추모와 다짐	집안 어른들을 먼저 가신 선친들의 신앙과 좋은 뜻을 기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자녀들은 각자의 신앙적인 다짐과 각오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나누도록 합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주제 :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수 24:14-15]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했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빈자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시작된 정복전쟁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성취한 약속에 땅에서는 평화가 지속되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혹은 이정도면 됐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방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정착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신까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눈 앞에 두었을 때 세겔에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세상 풍조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은 현 세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마땅히 전해야 할 것들을 가르친 여호수아는 다음의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선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함께 걸어온 지금까지의 삶이 좋지 않게 보인적인 없다는 걸 너희 스스로가 경험하여 알고 있다.

② 지금 이자리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고백이
아닐까요? 말이 아닌 삶과 행동으로 본을 보인 여호수아는 세상 풍조와 우상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수24: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와 동시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참혹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삿2: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날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회개한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안타깝게도
선한 가르침이 이어지지 않아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 결과 이후에는 영적 암흑기라 불리는 사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받은
은혜를 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간증과 선한 가르침이 믿음의 유산이 되어 대대손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